

전북도, 폭염대책 마련

14개 시군 무더위 쉼터·재난도우미 활용키로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북도가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폭염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폭염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만에 진안,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발생했다. 이 기간 일주지역은 35.4도까지 기온이 올라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뻐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3명으로 모두 병원치료 후 퇴원했다. 이에 도는 14개 시군에 3,814개소의 '무더위 쉼터(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와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1만4,323명(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을 활용키로 했다. 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과 폭염시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학생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와 실내온도 적정유지 및 학생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줄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전북도 노인안절실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더운 날씨에는 고령자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 꿈앤카페 개소

전주시는 11일 꿈앤카페와 전주책방 개소식을 갖고, 시청 로비를 전주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다. 개소식에는 김승수 시장, 김영지 시의회 의장, 송상준 시의회 부의장,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단체 및 가족, 독서동아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최찬욱 의원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조직위 감사패 받아



김명지 의장 최찬욱 의원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인후3, 우아1·2동)과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동)이 지난 9일 전주 오픈 국제태권도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두 의원은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태권도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물론 국제태권도 대회 유치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수상했다. 두 의원은 "이번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북 태권도 발전과 생활체육 등 스포츠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노인 상대 절도 10대 3명 검거

힘없는 노인들만 노려 일부러 시비를 걸고 돈을 훔쳐온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노인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A(73)씨가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8만원, 교통카드, 신분증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지역 일대에서 힘없는 노인들만 노려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BB탄을 쏘거나 일부러 시비를 걸어 노인들의 현금과 지갑을 훔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전주 에코시티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전주 에코시티 대형 쇼핑몰 입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에코시티가 최근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에 입점 의향을 표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장서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 쇼핑몰 추가 입점은 반드시 막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에코시티 개발 부지에는 62개 필지의 상업용지 중 대형 상업용지도 2개 필지가 있어 개발 초기부터 대형 쇼핑몰 용지로 개발했다"며 "대형 쇼핑몰 입점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은 지가 상승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자, 대기업의 탐욕만 채우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에 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가 에코시티에 입점할 경우, 전주는 물론 익산과 군산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김승수 시장이 공약한대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하는 대형쇼핑몰 추가 입점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주에만 6개의 대형마트가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등에도 대기업 유통점들이 앞 다퉈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권 보호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개발사업도 대형 쇼핑몰 입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함께 아우러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공론의 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재 기자

김호수 前 부안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명현)은 11일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건설 브로커 A(74)씨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56)씨, C건설업체 실제 운영자인 D(56)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A씨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브로커 A씨는 C업체 실제 운

영자인 D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업체 운영자 D씨는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인사비리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한 김 전 군수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했다.

/박용주 기자

주택가 개 훔쳐 건강원에 팔아

복합을 앞두고 민가에서 개를 훔쳐 건강원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1일 민가에서 키우는 개를 훔쳐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절도)로 A(3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를 도와 범죄를 도운 B씨(3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2시께 정읍시 모 카센터에서 C(46)씨가 기르던 황색 사냥개를 끌고 가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개 5마리와 강아지 2마리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도내 일본뇌염모기 첫 발견

전주·군산·남원·김제 유행예측조사 결과

도내에서 일본뇌염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남원, 김제에서 4월부터 매주 2회 실시한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으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전파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 감염계통은 12세 이하 아동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에서 고열, 두통, 복통, 혼수상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높고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다.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0명의 일본뇌염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나 전북지역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법"이라며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 중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지난 4월 1일)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